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

“깨달음에 집착 말라…길은 경전 안에 있다”

12면에 이어

출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은 넙죽 사미십계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님은 자연스럽게 출가했다. 도갑사에서 수행을 시작한 스님은 화순 용암사에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다시 정식으로 사미계를 받았다. 1966년 3월의 일이다.

“은사스님께서는 평생 수행과 교육과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특히 계율(戒律)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계율이 수행자의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칠불통계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즉,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온갖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를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스님의 말씀을 새기고 행하려고 저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지식(善知識)들을 모시는 기쁨

1972년 3월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이후 보선 스님은 화순 용암사와 문경 봉암사, 순천 송광사, 공주 마곡사, 인제 백담사 무문관은 물론 대흥사 동국선원에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화두는 ‘이뭣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스님을 비롯해 송담 스님, 구산 스님, 서암 스님께 모두 똑같이 ‘이뭣고’를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화두는 ‘이뭣고’로 통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生死)가 무엇인가를 참구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통합적인 의문이 바로 ‘이뭣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00공안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진하는 동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을 모시고 수행했다. 스님은 “구산 스님, 경봉 스님, 서옹 스님, 청화 스님, 송담 스님, 서암 스님 등이 생각난다”고 했다.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1980년 전후 될 것입니다. 그때 송광사가 한창 불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울력 목탁이 울리면 구산 스님께서는 제일 먼저 낫과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오셔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각 지을 때 쓸 목재들을 스님들이 직접 다듬었습니다. 구산 스님의 낫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진 중 반철이 지날 즈음에는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수좌들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삼일암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삼일암 마루에 난초가 딱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절을 올리니 ‘정진이 어떠한가’라고 여쭈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초 향이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주장자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해요. 이내 ‘이놈아! 얼른 가서 더 열심히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도망왔습니다. 하하.”

해제를 앞두고 구산 스님이 다시 보선 스님을 불렀다고 한다. 정진에 열심이던 젊은 수좌를 눈여겨 봐왔던 터였다. 봉투를 꺼낸 구산 스님이 “이것은 해제비가 아니고 다시 오라는 차비이니 그리 알고 받아 가거라”고 말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3만원이 들어있었다. 당시 해제비가 3만원이었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이를 본 수좌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천운 스님 인연으로 佛門에 들어
선지식들에게 ‘이뭣고’ 화두 받고
지금도 수좌들과 매일 수행 정진

‘우리 결의 성자’로 존경받았던 청화 스님도 잊을 수 없는 어른이라고 했다. 대흥사 진불암에서 10년 넘게 묵언과 장좌불와를 하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청화 스님을 한국의 밀라레파라고 하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만 진력하셨습니다. 염불선을 기반으로 정통불법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어른의 모습이 가슴에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 정진할 때 공부에 진전이 없어 경봉 노스님을 찾아가면 ‘중생도 부처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알면 될 텐데’라며 격려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화두 참선 중인 보선 스님. 스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 수좌들과 함께 정진한다.

보선 스님은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오전에는 동국선원에서 13명의 수좌들과 같이 정진한다. 오후에는 출재가를 두루 만나며 공부를 점검해준다. 일정이 없을 때면 염화실에서 책을 보거나 화두를 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보선 스님을 만난 때는 마침 부처님 성도(成道)재일 직후였다.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여쭈지 않을 수 없었다.

“싯다르타 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날이 바로 성도재일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출가 이후 온갖 고행을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싯다르타 태자는 수자타가 올린 죽을 드시고 왕자 시절 경험한 참선의 경험, 참선의 맛을 살려 다시 선정에 들어 정등각을 성취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상에 얽맨 사람 많아
일념으로 정진하면 저절로 깨달아”
업장 소멸하는 길은 보살행에 있어

깨닫고 보니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안 천신들이 깨달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부처님께 간청을 하였고 결국 다섯 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도재일입니다.

부처님은 다섯 비구를 만나 중도연기(中道緣起)와 팔정도(八正道),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등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비구가 깨달은 뒤 야사와 그 친구 54명이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전도대선언’을 하시며 전법의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여야 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덧붙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깨달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제방을 살펴보면 깨달음이라는 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념으로 화두에 매진하다 보면 깨달음은 저절로 옵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지침은 경전에 있습니다. 자연스런 정진과 깨달음은 함께 오기 마련입니다. 이점을 잘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선 스님은 사부대중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님은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나갔다.

“제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잘 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뭣이냐? 제가 볼 때는 업장을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업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업을 소멸하는 길은 보살행에 있습니다. 보살은 이타행(利他行)을 합니다. 그런데 이타행이라는 것은 곧은 자리행(自利行)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둘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길, 즉 업장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행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번 한 생 세상에 왔으니 진정한 보살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업장소멸만이 나를 해탈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살아야 합니다. 웃으려면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갈등, 상대방과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타협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웃고 삽시다. 하하.”

스님의 유쾌한 웃음과 함께 긴 인터뷰는 끝났다. 어느새 어둠이 온 산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전혀 어둡지 않았다. 산중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임을 보선 스님을 친견하면서 다시 확인한다.

유철주 /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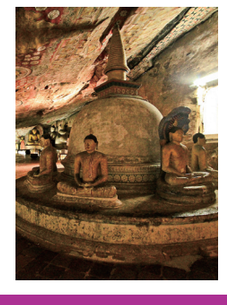

중국 4대 불산
■ 지역별 상품 – 운강석굴/오대산 5일
– 구화산/황산 5일
– 무석/보타낙가산 5일
– 아미산/낙산대불 5일
■ 동참금 문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주요일정 백두산 천지(온천욕)+돈화 정각사


일본
■ 지역별 상품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동 참 금 문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 출 발 일 6월 11일
■ 주요일정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 동 참 금 180만원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 동 참 금 문의


스리랑카 8일
월/수 출발가능
■ 주요일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 동 참 금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